

반세기 기술력을 담아 주방공간을 완성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집콕족의 등장은 때아닌 인테리어 업계의 호황으로 이어졌다.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홈 인테리어를 위해 포인트 가전과 가구를 적극 활용했고, 그중에도 가족이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인 주방은 집안 분위기 변화의 첫 번째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트렌드와 특별함을 추구하는 지금, 린나이코리아는 주방공간을 빛내기 위해 47년의 기술과 경험을 담아 프리미엄 주방공간을 완성시키려 한다.



Rinnai

라이프스타일 맞춤 인테리어 주방 가전

연탄과 아궁이 앞에서 땀을 흘리며 쪼그려 앉아 있는 주부의 모습이 그려지던 국내 주방은 최근 유럽 감성이 조화된 프리미엄 스타일, 내추럴한 원목 스타일, 심플하고 모던한 미니멀리즘 스타일 등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맞춤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기존 주방의 어떤 인테리어에도 어울리는 ‘린나이 컬러인덕션’은 새하얀 도화지에 그려진 수채화와 같은 부드러운 색감으로,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타며 홈 인테리어 포인트 가전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린나이는 봄에 어울리는 밝고 화사한 빛깔의 소프트 피치(Soft Peach)와 집 안에 따뜻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웜 그레이(Warm grey) 두 가지 특별한 컬러를 선보였다.

소비자의 사용 편의성을 위해 탄생한 컬러인덕션

린나이 컬러인덕션은 출시 전 온라인 사전판매에서 디자인과 컬러만으로 조기 완판 기록을 세울 만큼 기존의 인덕션 제품과는 다른 색(色)의 매력을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처럼 소비자의 마음을 잡은 비결은 단순히 고사양의 스펙과 디자인뿐만은 아니었다. 빌트인 제품의 특성상 인덕션 구매를 고민하는 소비자가 설치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상판 타공에는 수십만 원의 비용이 지拂될 수 있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한다. 린나이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기존 빌트인 제품을 사용했던 주방에선 싱크대 상판 사이즈 고민 없이 쉽게 설치가 가능한 신개념 인스톨프리 방식을 도입했다. 인스톨프리 방식은 제품에 동봉된 브라켓을 활용해 상판 타공의 세로폭이 짧거나 길어도 추가 공사 없이 간편하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설치 부담감을 해소했다. 또 싱크대 하부 빌트인 가전이 있어도 문제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48mm 초슬림 핏 마감을 적용해 설치 용이성을 극대화했다. 컬러인덕션의 듀오 쿡킹존(DUO Cooking Zone) 역시 음식의 다양성과 플레이팅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의 사용 편의성을 위해 탄생했다. 양이 많은 요리는 큰 팬으로 한 번에 요리할 수 있고, 양이 적은 요리는 2가지 용기에서 동시에 조리할 수 있는 듀오 쿡킹존은 요리를 즐기는 소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편의 기능이다.



CEO INTERVIEW



린나이코리아(주)
대표이사
강영철

5년 연속 전기레인지 부문 프리미엄브랜드지수 1위에 선정될 수 있도록 린나이를 지켜주고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항상 현장에서 구슬땀 흘리는 임직원 여러분께 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린나이는 대한민국 부역 근대화와 함께한 기업으로 앞으로도 우리 생활 전반의 고민과 니즈를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해나갈 것입니다.